

김홍구 자서전

세월 그리고 그림자



• 차례 •

제1부

살아온 이야기

- | | | |
|----|--------------------|------|
| 1 | 긍정의 뿌리 | _ 13 |
| 2 | 아버지의 그늘 | _ 16 |
| 3 | 어긋난 선택 | _ 19 |
| 4 | 벌어 가며 마친 대학 생활 | _ 23 |
| 5 | 교통사고와 그 영향 | _ 25 |
| 6 | 두 만남 - '푸른문구사'와 아내 | _ 28 |
| 7 | 굴렁쇠 바퀴 | _ 35 |
| 8 | 아이들의 성장기 | _ 33 |
| 9 | 어려웠던 시기 ㉠ | _ 41 |
| 10 | 어려웠던 시기 ㉡ | _ 44 |
| 11 | 성공의 비결 | _ 46 |

제2부

아낌없이 주는 정치

- | | | |
|----|---------------------------|-------|
| 1 | 선출직에 대한 소고(小考) | _ 59 |
| 2 | 내가 물을 좋아하는 이유 | _ 61 |
| 3 | 의원과 공직자의 바람직한 관계 | _ 64 |
| 4 | 〈남산공원〉 개발 | _ 72 |
| 5 | 〈교통안전체험센터〉 유감(遺憾) | _ 80 |
| 6 | 공약의 이행-고압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 | _ 86 |
| 7 | “상주에 영화관을 만들어 주세요!” | _ 91 |
| 8 | ‘아무도 같은 강에 두 번 들어서지 않는다!’ | _ 94 |
| 9 | 고속도로 무료 통과~~ “신나요!” | _ 96 |
| 10 | 올바른 관계의 설정을 위한 제언 | _ 98 |
| 11 |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 _ 104 |

12	보조금은 ‘눈먼 돈?’	_ 109
13	‘부정행위 방지법’의 역설	_ 120
14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_ 122
15	팩트 체크 - 선거 비용을 100% 보전해 준다?	_ 124
16	인구 문제	_ 130
17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_ 146
18	‘갈 지(之)’ 자 의회	_ 150
19	탈당, 무소속 출마한 이유	_ 154
2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법인화	_ 160
21	시장과의 질의문답	_ 166
22	선출직 후기(後記)	_ 177

제3부

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청소년'에 관한 것

- | | | |
|---|--------------------|------|
| 1 | 잼버리 대회 | _193 |
| 2 | 내 손을 벗어난 화살 | _199 |
| 3 | 첫 번째 관심사는 '청소년 복지' | _201 |
| 4 |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 _206 |
| 5 | 상주농구협회를 조직하다 | _215 |
| | 책 후기 | _226 |

어려웠던 시기 ㉠

·
·
·

1) 문제와 해결

처음에는 가게 물건을 시장 안에 있는 <대동상회>에서 받았다. 지금도 나오는 '모닝글로리'를 비롯하여 최고 품질의 상품만을 들여놓았다. 그런데, <대동상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격으로 소매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윤이 생길 수가 없었다. 기분이 몹시 나빴다.

봄방학을 하면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용품을 사러 학부모와 학생들이 문구점에 몰려왔다. 그런 날은 <대동상회>의 경우 하루 매상을 천만 원 단위로 올리는데, 우리 가게는 7~8만 원 정도에 그쳤다. 가게를 계속 하려면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해 보였다.

어느 뜨내기장사가 우리 가게에 와서 한 권에 350원 하는 노트를 260원에 주겠다고 했다. 나는 25박스(약 10000권)를 받았다. 노트를 200원에 다 팔더라도 60만 원밖에 손해가 나지 않았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게로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200원에 팔기 시작했다. 작전은 적중했다. 사람들이 가게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른 상품은 정상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총합에서 손해 보지는 않았다. 이를 계기로 가게가 자리를 잡아 가기 시작했다.

2) '안 되는 게 없더라'

다른 가게들에서 물건을 찾다가 구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가게에 물건이 없더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날까지 원하는 물건을 구해 주었다. 수년 동안 이런 경험이 쌓이니까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 가게에 가니까 다 구해 줘서 안 되는 게 없더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3) 학교에 재투자하기

알다시피 문구점의 주 고객은 학생이다.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건 학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점차 가게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상주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축제를 하거나 학교 전체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전교생에게 한 권씩 돌아갈 수 있는 수량의 노트를 전달하였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사 줄 때는 아이의 것만 준비하지 않고, 아이의 반이나 학년 전체에 그 물품을 전달했다. 그것은 우리 아이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네 존재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

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합리성은 그렇게 하는 데 꼭 필요한 특성이다'는 교훈을 베푸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한 것이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반대로 내 아이만 챙기다 보면 선생님한테 부당하게 접근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어려웠던 시기 ㉔

·
·
·

1) IMF 외환 위기

1997년에 불어 닥친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나의 역발상이 도움이 되었다. 모든 경기가 공포 얼어붙어서 재정을 바짝 조이고 지출을 틀어막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절에 나는 〈안동 mbc 라디오〉 밤 10시 프로인 ‘별이 빛나는 밤에’에 우리 문구사의 광고를 넣었던 것이다.

성우 1명당 50만 원 해서 남녀 2명에 11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고 2년 동안 광고를 했다. 다 어려운 시기에 가게를 안정시켜 놓으면, 다 잘될 때 남들보다 앞서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광고는 강원도 영월까지 올라갔다. 영월에서 연락이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오고, 심지어는 구매하러 가게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역발상을 실행한 덕분에, 전례 없는 국가적인 고난의 때에 나는 오히려 가게를 확실히 안정시킬 수 있었다.

2) 세입자의 설움과 농구공

가게는 월세로 있었는데 10개월마다 세를 올려 주었다. 그러다

가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장사가 좀 되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가게를 비워 달라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내쫓기는 기분이었다) 가게도 남의 돈으로 시작했는데 눈앞이 캄캄했다. 그때는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다. 그렇게 많이 울어 본 적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이전에 문구점 옆 건물에 <푸른운동구>를 차려놓았었다. <푸른운동구> 바로 옆이 양봉원 하는 자리였는데, 양봉원 주인한테 잘 설명해서 그 자리를 얻어 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바로 옆 자리로 옮겨서 <푸른운동구>와 <푸른문구사>를 같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

‘IMF 외환 위기’로 기억되는 1997년은 프로 농구 원년이기도 했다. 이때부터 농구 붐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던 중 다다음해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 화물로 물건이 못 오니까 농구공이 공급 불가능이 되고 자연스럽게 품귀 현상으로 공 값이 치솟았다.

마침 전에 받아놓은 농구공이 500개 있었는데, 다른 가게에는 물건이 아예 없었다. 그래서 공 한 개에 15000원씩 소매가로 다 팔 수 있었다. 농구공 덕분에 우리 가게에 대한 광고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보았다.

성공의 비결

•
•
•

1) 프로 정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에 이런 일화가 나온다.

1952년 1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미군은 부산에 있는 미군 묘지에 잔디를 입히는 일을 발주했다.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단 5일이었다. 이해할 만하게도, 엄동설한에 잔디를 구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업체마다 전부 거절했다.

모든 업체가 ‘겨울에 잔디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거절한 주문을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정주영은 받아들였다. 미군이 원하는 것은 잔디가 아니라 ‘파란 풀’이라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는 낙동강 연안에 있는 보리밭을 통째로 사서 파란 보리 포기를 떠다가 미군 묘지에 옮겨 심었다.

“원터풀, 원터풀, 굿 아이디어!”

미군 관계자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다.

소비자가 찾는 물건이 내게 없더라도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프로 정신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

하자면, 이렇게 해서 쌓인 신뢰가 우리 가게를 안정시킨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물건을 주문하면 화물로는 보통 3, 4일이 걸리는데, 이 정도 시간으로는 손님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웠다. 나는 지금 주문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다음날 바로 갖다 놓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이 문이 남든 안 남든 그 약속을 지켰다.

내가 한가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가게는 아내에게 맡기고 나는 건설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가게 일로 짬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직접 부탁할 수 있는 분(제조업자)이 서울에 있었는데, 현금으로 선불하면 만들어 주었다. 만든 물건은 내가 공장까지 가서 찾아오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만나 받아오곤 했다.

2) 변화

① 가게 배치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주기적으로 가게 배치에 변화를 주는 것!

가게는 주인이 주는 사랑만큼 주인한테 이문을 남기지.

가게의 빈 공간에는 생명력이 있어

공간이 원하는 좋은 물건들로 진열하면

공간은 주인의 사랑을 느끼고 이익으로 보답한다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주인이라면

고객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손님들이 먼저 안다네.

머잖아 손님이 변화를 알아채는 ‘순간’

가게에 느끼는 감정도 달라져

내가 주인인지, 손님이 주인인지

종업원이 주인인지

개념의 벽은 사라지고 모두가 주인이 된다네.

주인이 가게에 사랑을 듬뿍 주면

사랑받는 가게는 손님들의 눈에도 사랑스러워

어머니가 여아(女兒)를 예쁘게 단장하여 거리로 나가면

사람들마다 “예쁘다!”고 칭찬하듯이

자기 딸처럼!

가게 배치에 변화를 줌으로써 얻게 되는 3가지 이익


- ㉠ 그동안 안 팔리던 물건도 팔린다.
- ㉡ (‘c’와 관련 있다)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 ㉢ 소비자의 허상(虛像)을 일깨워 준다.

② 고객층 확장

이와는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도 가게의 이미지 쇄신과 고객층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내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수천만 원을 들여 도장과 고무인을 새기는 기계를 구입한 적이 있다. 손으로 새기는 목도장이 한

글로 5000원, 한문으로는 7000원 했고, 사업자 고무인이 25000원 하던 시절이었다.

 아내의 말 : 남편은 변화 즉 새로운 쪽에 관심이 많다. 나는 여자라서 그런지 자주 벌렸다가 손해 볼까 봐,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가 늘 있었다. 지금은 남편이 옳았다는 걸 안다. 다들 온라인으로 구매하니까 가게가 예전 같지 않다. 저조한 출산율도 영향을 주는데, 예전에는 등교 시간이 되면 가게가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다 준다. 또 교육부가 학교에 단체 구입을 많이 하게 하는 것도 문구점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다.

기계가 들어오면서 우리 가게는 목도장은 1000원, 사업자 고무인은 8000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도 돈은 남았는데, 너무 많은 이득을 챙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값이 싼데다 즉석에서 바로 새겨 주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몰렸다. 인근 도장 업자들의 불만이 커서 지금은 2000원에 목도장을 새겨 준다.

실패한 시도도 있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광고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였다. 그때 처음으로 나온 <슈퍼컴보이>라는 이름의 청소년 게임기를 우리 가게에 들여 놓았었다.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지만 주변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수백만 원 손해를 보고 말았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고인 물처럼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고인 물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 언제 차바퀴가 달려와서 고인 물을 사방으로 튀겨 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일>이라는 가게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려놓기를 바란다면, 지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감(靈感)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3) 1원의 가치

가게를 처음 시작하면 보통 첫 3년은 투자하는 단계이고, 그다음 3년은 세이브(본전) 단계이다. 그다음 해인 7년차부터 조금씩 이익을 내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게를 열자마자 이익금을 환수하는 데만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조금하계 움직이다 보면, 그 단계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결과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가 쉽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려는 것보다 1원을 중시하는 태도를 발전시켜야 큰돈을 벌 수 있다. 베풀 때도 1원은 아끼고 큰돈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적다고 1원을 소홀히 하면 큰돈도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의 태도를 보고 큰 것까지 맡기려 한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실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투자하거나 베풀 때 1원씩 열 번 내는 것보다 10원을 한 번에 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받는 사람이 인지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스스로 누군가에게 해 주려고 하거나 누가 도움을 요청해서 해주기로 했으면, 작은 거라도 기꺼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

곳이 거절하는 게 처세술의 한 가지 방법이다.

손때 묻은 게 무섭다고, 모든 영업은 모르는 사람이 해 주는 거지, 잘 아는 사람은 이런 면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가게를 홍보하는 최상의 방법은 오는 손님을 환영하는 것에 더해 1원짜리 물건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손님이 꼬리가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밖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직원과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한다. 더디더라도 남이 내 가게를 광고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방법이면서 (내 가게를 찾아온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의 영업이다.

상주는 이런 곳이에요~~

1. 꽃감 축제



전국 꽃감 생산량의 70%를 상주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상주는 국내 꽃감의 본고장임이 분명하다. 속리산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을 막아 주고, 건조하고 찬바람이 많이 불며 일교차가 커서 맛있는 꽃감이 만들어진다.

상주 꽃감은 속살이 부드럽게 입 안에서 풀리고 이물감이 없는 게 특징이다. 상주의 전통적인 특산물인 '삼백'(三白: 쌀·누에·꽃감)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상주 꽃감 축제는 봄이면 그해의 감 풍년을 기원하고 가을이면 결실에 감사하는 마을 잔치 마당이다. 또 마을 주민과 학생 200여 명이 참여하는 길놀이 퍼레이드는 감나무의 일생과 농부의 힘겨운 삶을 이야기로 다룬다.

이 이야기는 750년 된 ‘하늘 아래 첫 감나무’와 조선 예종 실록에서 상주 꽃감을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특히 임금님께 진상하는 장면은 축제 기간에 매일 2회씩 공연을 갖는다. 꽃감 축제는 상주 꽃감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꽃감 공원



1) 조성 목적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꽃감 창작 동화를 주테마로 『꽃감의 분향 상주』의 역사성·정통성·우수성을 홍보하고 상주 꽃감에 대한 테마가 있는 다양한 볼거리, 체험 거리가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상주 꽃감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되었다.

2) 조성 현황

- ① 조성 기간 : 2008. 1. 1 ~ 2015. 2. 27(8년)
- ② 소재지 :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457 일원(소은 1길 59-12)
- ③ 부지 면적 : 32,021m²
- ④ 건축 면적 : 5개 동 3,317.47m²
- ⑤ 사업비 : 118.14억 원
- ⑥ 주요 시설
 - 실내 시설 : 다목적 강당, 전시 체험관, 어린이 놀이터, 카페테리아 등
 - 야외 시설 : 야외 광장, 야외무대, 조경 시설물 등
 -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소, 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등

3. “하늘 아래 첫 감나무”

전국 최초로 꽃감 특구 지역으로 지정받은 상주시 외남면에는 수령 750년이 된 “하늘 아래 첫 감나무”(‘하늘이 열리고서 첫 감나무’ 즉 가장 오래된 감나무라는 뜻)가 있다. 너무 오랜 세월을 견디느라 줄기의 가운데가 괴사해 둘로 갈라져 있지만 가지가지마다 주홍빛을 머금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눈길을 끈다.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김영주 씨 소유의 이 감나무는 경상북도



에서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 감나무는 해거리도 하지 않고 매년 5천여 개의 감이 열리는 등 아직도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지금 꽃감의 진상을 상주에 나누어 정하였다”라는 조선조 예종 실록(권 2 1468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상주 꽃감이 임금님께 진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감나무에서 수확한 감으로 만든 꽃감이 진상되었다고 한다. [출처: 채널영남 상주 방송]

4. 축제의 방향(회의록)

김흥구 의원 국장님은 우리 상주시 축제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아직 축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전반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감고을 축제를 하고 나서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이나 시기적인 문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감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상주의 종합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구 의원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외남곶감 축제를 열어 큰 성공을 거두었지요? 어떻게 했었지요?

행정복지국장 외남곶감 축제는 면 축제로서 곶감에 대한 홍보라든지 매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읍면 단위 농림수산부의 평가에서도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홍구 의원 외남곶감 축제가 첫해인데도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지요. 핵심은 관 주도가 아닌 생산자 위주의 발상입니다. 축제의 생명력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종합 축제에는 축산도 있을 수 있고, 감도 있을 수 있고, 배도 있을 수 있고, 사과 등 모든 농산물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생산자 위주로 축제를 전환시키면서 시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제144회 상주시 의회 제4차 본회의 2012.3.2.]

선출직에 대한 소고(小考)

·
·
·

나는 항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도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내가 모두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담당할 역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나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없다.

선출직에 대한 개념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선출직에 대한 개념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의원들 가운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제시하는 기준들 가운데는 선출직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흐려 놓는 경우가 있다. 때때로 의원들-전체든, 개인에 대해서든-에 대한 평가가 편협한 방향으로 흐를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선출직은 ‘주민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각자가 자기 눈높이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종종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기가 쉬울 것이다. 이처럼 주민은 자신(개인)이 우선이지만, 선출직 의원에게는 전체 주민이 우선이다. 하지만 100% 주민들 전체를 만족시키기란 정말 어렵다는 말도 사실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눈앞에 두고 적당히 움직이지 않는다. 수동형의 사람은 요구받은 일만 하면 그만이지만, 능동형은 먼저 알고서 움직인다. 즉 필요한 상황 지식을 갖고서 움직인다는 말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얼마의 반대가 있다 해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주민들 전체의 시스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일을 앞에 두고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물을 좋아하는 이유

•
•
•

나는 물을 좋아한다. 투명한 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빈 곳은 조금의 틈도 남기지 않고 다 채우며 자신의 길을 간다. 어떤 모양이든 채우지 않고는 흐르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모양이라도 다 채우고 난 다음에야 자기의 길을 간다.

밥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른 이유는 그릇들마다 담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그릇의 용도도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이 다르듯이 다 다르다. 점주(店主)에게는 서로 다른 그릇들인 손님들을 대할 때 그들 각자에게 알맞은 접근 방법과 대화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더 큰 그릇이 될 것이 요구된다.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는 선출직의 경우에는 대중의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의원들도 자신의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소통이 잘

될 때는 두 시스템이 조화롭게 움직인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가 자기들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기가 쉽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으나,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기를 바라는 선출직의 입장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선출직의 성격상 어떤 상황이 되었든 자기한테 불리한 쪽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의 이익에든 지역의 이익에든 부합하는 데가 있어야 교류가 가능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필요한 걸 담고 있어야 예뻐 보이는 법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민들로부터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의회’라는 테두리 즉 공통 관심사가 없다면 의원들 개개인은 각자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어떤 구속이나 제한도 없이 독립적인 판단으로 사물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두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안경알 사이에서 하나의 초점 즉 공동 이익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자기 지역의 이익과 다른 지역의 이익이 상충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3의 인사가 나서서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안타까운 점도 있다. 지역민들은 대체로 의원을 선출해 놓고서 바로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묘목을 심자마자 열매를 보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급하게 해서 제대로 되

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유를 갖고서 능력을 발휘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하나씩 접근해야 한다.


물은 어떤 모양이든지 채우지 못하는 그릇이 없다. 동그란 그릇이든 네모난 그릇이든 길쭉한 그릇이든 불평 한마디 없이 다 채워준다. 단순하게 생긴 그릇이든 복잡하게 생긴 그릇이든 다 채워준다. 잘생긴 그릇이든 못생긴 그릇이든 가득가득 꼭꼭 눌러서 채워준다. 그렇게 채워 주고도 거기에 머물지는 않는다. 물은 넘쳐 흘러서 제 갈 길을 간다. 어느 한 그릇에 머무르는 것은 물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과 공직자의 바람직한 관계

1)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어릴 때의 나의 꿈은 공무원이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꿈도 조금씩 바뀌어 갔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정치가 가장 영향력이 커 보였다.

내가 시 의회에 진출한 목적은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나 자신의 안타까움을 발산시키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시 의원으로서의 나의 꿈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일을 지역민들은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잘된 일은 지금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일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에 대해 이런 무한의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선출직에서 느낀 매력이었다.

 아내의 말 : 남편은 성실하고 검소하다. 형편이 어렵게 커서 그런지 밥그릇에 밥 한 톨 남기지 않을 정도로 낭비를 싫어한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많이 생각하는 것도 본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탓인 것 같다. 우리가 가게를 해서 먹고사는 것

도 남이 팔아 준 덕분이니까, 나중에는 이익을 사회에 다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남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의회 활동을 잘할 것 같아서 의원을 하도록 권했다.

내가 선출직으로 있을 때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는 데 지역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거철 슬로건-선거철만 아니라 그 후로도-〈민생 해결사〉로 정하였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주축은 뭐니 뭐니 해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바짓가랑이에서 나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 지역도 이렇게든 저렇게든 바뀌게 된다. 선출직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그래서 책임 소재가 없다-약점이 있지만, 공직자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수는 있다. 따라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역할을 의원들이 해야 한다. 혜택은 주민들이 보기 때문이다.

이 역할을 할 때도 조심할 점이 있다. 선출직이 과도한 욕심을 내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위축되거나 그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들을 기분 좋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선출직이든 공직자든 지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따라서 바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사기를 북돋우고 부추겨서 힘을 내게 하는 역할도 시 의원이 맡아야 할 것이다. 때때로 생각의 초점을 지역 발전과 복지에

맞추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공직자를 보면 그들의 역량과 생각에 물음표를 떠올리게 된다.

상주시에는 11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다. 내가 시 의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중심축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때만 해도 공직 사회가 매끄럽지 않아 위에서 “No!”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못했다. 밑에서 제안 사항을 내놓으면, 위에서는 “왜 골치 아픈 거 만들려고 하느냐?” 하며 되레 타박한다. 좋은 것은 남아채어 자기들의 공으로 돌리고, 안 좋은 것은 짐을 더 얹어 줘서 의욕을 꺾어 버린다.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적당주의에 빠지기가 쉽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간부들이 젊은 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 | |
|--------|---|
| 김홍구 위원 | 인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일반직과 기능직 승진 소요 연수가 직급별로 어떻게 되죠? |
| 총무과장 | 현 직급 6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 |
| 김홍구 위원 | 일반직, 기능직으로 세분화해서요. |
| 총무과장 | 그렇게는 자료를 발췌 안 했습니다. |
| 김홍구 위원 | 그럼 일반직만 해 보세요. |
| 총무과장 | 일반 직렬에 대해서는 직렬별로 행정 15년 이상 |

이 5명, 시설이 2명, 환경 2명, 이렇게 연수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제가 자료 취합을 해 봤거든요. 일반직과 기능직 승진 소요 연수가 5급은 13년이 좀 넘습니다. 6급은 12년, 7급은 6년, 8급은 4년이 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승진 평균 소요 연수가 지났는데도 승진되지 못한 인원들이, 실례로 6급 35명은 13년이 넘었는데도 승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7급은 225명이 적체되어 있고요, 8급은 36명, 기능 7급은 17명, 이런 식으로 계속 적체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상위직에서 자리가 비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 하위직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승진 평균 소요 연수가 되기도 전에 승진한 공무원은 파악하고 계세요? 승진 소요 연수에 승진하는 분은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아서 승진하셨겠지만, 승진 소요 연수가 훨씬 지난 분들이 많은데도 소요 연수가 차지 않은 분들이 승진

- 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 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홍구 위원** 평균 소요 연수가 넘은 분들은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총무과장** 상위 직급은 규정에 맞게 정원을 책정합니다. 6급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근속 승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 다소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다 시켜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 김홍구 위원**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만약 6급을 달고 초반에 무슨 불의의 일이 있었다고 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것 하나 때문에 승진에서 계속 누락된다면 사기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승진 소요 연수가 훨씬 지났는데도 승진을 안 시켜 줄 때는 개인한테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 총무과장** 예,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김홍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취합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읍면동에 다녀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승진한 지 연수는 오래 되어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소통이 안 된다 등등, 잡다한 이야기들

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분들은 승진 반열에 올려 주셔야 되요. [2012년
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총무위원회 2012.6.29.]

2) 상대방을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a, b, c 직원들이 있으면, 그들이 다 똑같이 일하지는 않는다. 누가 일을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면, 그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욕먹을 일도 없고 승진도 빠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일하는 사람은 욕을 먹게 마련이다. 이런 게 지방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공직 사회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모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그건 공산 국가다.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를 뿐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인식에 도달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서로의 생각을 조정해 나가는 게 미덕이다. 먼저 내가 정답이라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양자의 공통분모를 찾아 그 길을 따라간다면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가 없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겠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읍면동에 암행 감사관이 다닐 때였다. 면 단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꽃길 조성 사업을 한다고 면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다 나가고 민원 담당 공무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필

그때 암행 감사관이 들이닥쳤는데, 혼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공무원은 미처 감사관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공무원은 90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고를 받았다.

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경고를 주는 것은 불합리할뿐더러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도가 아니라, 감사관을 대하는 친절도를 살피려 간 셈이 되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문화는 지역민 사이에서도 필요하다. 민원을 제기할 때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 보면 좋다.

“내가 지나치게 요구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주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공직자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손가락은 춤을 추면서 일하게 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관, 그리고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이 정립되면 한두 사람의 생각이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문화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이 관련되면 내 것을 먼저 내줄 수도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당장 그렇게 할 것처럼 말하다가 막상 예산을 세우고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면 남의 것부터 하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사벌면 두릉리가 내 고향인데,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구불구불

한 흙길이어서 시에서 일자 도로를 낼 계획을 세웠다. 마을 입구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동천(洞川)이 흐르고, 이 하천을 건너면 길 왼쪽으로 100m 정도의 논이 나의 소유였다. 도로를 내려면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동네분들이 안 내놓으려고 했다. 내가 첫 번째로 도장을 찍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도 찍어 주었다.

첫 번째 관심사는 ‘청소년 복지’

•
•
•

1) 현 복지 제도의 문제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나중에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안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의 뇌리에 꽉 박혀 버렸다.

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청소년 복지다.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에 청소년 복지가 완성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는 “그날”이 있는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경쟁하듯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소위 ‘퍼주기 복지’가 있다. 당장 받을 때는 좋아 보이겠지만, ‘퍼주기 복지’에는 미래가 없다.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긍심(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을 심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 중요한 점으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나중에 청소년들 같은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청소년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빚쟁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더욱이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나눠 져야 할 미래의 빛은 곧 그들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복지'가 좋다 해도 적당하게 해야지, 지금만큼만 해도 넘칠 정도로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나라 실정이 그 정도는 아니다. 또 과잉 복지는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어 지역 민심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

어느 70대 노인이 한 말이 생각난다. 노령 연금을 왜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주느냐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며)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나쁜 짓한 사람이 나이 기준만으로 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이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빈둥거리면서 일하기 싫어하고 가족들 제대로 돌보지 않던 사람이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옳바르지 않다. 공짜라고 흘러 버리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돈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나는 복지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 내게 하는 진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이'라는 기계적인 잣대보다는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의 공감을 얻기가 쉬울 것이다.

'복지'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고령화 사회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기 때문에 어른들이 젊은이들한테 대우를 받지 못하는 면도 있다. 잔치는 어른들이 하고 젊은이들한테는 설거지

만 시키는데, 내 자식인들 좋아하겠는가? 노인들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노래하는 동안 젊은이들의 등골이 휘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걸 소모적이기만 할 뿐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또 지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애꿎은 보조금만 엄청나게 퍼붓고 있다. 다 빛 좋은 개살구요, 헛돈을 쓰는 것이다. 그 돈도 자기들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귀중한 세금을 써 가면서 한창 젊은 사람들의 정신 속에 거지 근성을 심어 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 다 먹여 살린다니까, 청년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정 돈을 주려면, 이자는 보전하더라도 원금은 회수해야 한다. 퍼 주기 정책은 결국 공간을 비우는 정책에 불과하다.

2) 대안-자생(自生) 복지

국가의 정책에는 연습이 있을 수 없다. 중앙 정부가 준비 안 된 정책을 내뱉으면 그 여파가 국민들에게 미친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지그재그 정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정(市政)도 마찬가지다. 압력 단체의 압력 때문에, 그리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리로 안 가기가 어려운 것이 선출직 자치 행정의 맹점이다. 이를테면, 표를 의식한 복지 행정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제부터는 자생(自生) 복지로 가야 한다. 청소년과 노인들의 연

령대별로 일을 만들어 주고,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주는 것이다. 일한 대가로 받으니까 빚질 일도 없고, 자긍심까지 생겨나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사회는 일하는 분위기로 넘쳐나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에 해당한다.

요즘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라곤 PC방, 스마트폰, 인터넷게임 등 개인적인 공간뿐이다.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활성화하고 학교 수업을 연계하는 학원들이 연대하여 청소년의 활동 범위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세대 간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올바른 청소년 복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자립 기반을 닦도록 도와줌으로써 원만하게 사회 경쟁 체제에 합류하고 지역과 국가와 상생 발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잘된 복지 혜택을 받고 성장한 청소년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은 노인 복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멕시코에는 노인 복지 시설이 드물다고 한다. 자녀가 직접 노부모를 보살피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결혼하면 다 내보내고 따로 살지만 부모가 나이 들어 곤경에 처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집으로 모셔 와서 돌본다. 자녀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본분으로 생각한다. 아들과 손자녀와 한집에 사는 노인들을 보면 가족의 유대가 긴밀함을 느낄 수 있다.

핵가족 시대에는 아이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나

의 관심사가 청소년 쪽으로 옮겨 가는 이유도,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중심이듯이 우리 시를 들여다보면 청소년이 상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포용하고 배려하여 더 높은 꿈을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
•
•

1)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역할이 뭐지요?”

김홍구 의원 우리가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청소년 참여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이 총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하고 정기 총회를 하는데,
 각종 활동 계획이라든지, 우리 시의 요구 사항이
 라든지, 그런 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위
 원회’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청소년 참여 위원회’
 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 학교로 발송한 공문인데, 제가 읽
 어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권익과 복지, 역량 강
화와 사회 발전 등의 역할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
고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년도 상수시 청소년 참여 위원회 위원을 선발하오니 역량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처 우리 어른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청소년들의 욕구가 뭔지를 찾아내어 정책에 반영하려고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로 정해 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의원 참여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미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구 의원 상부 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위원회는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낮잠 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이 청소년들이 무슨 안을 내놓으면 변화하는 모습이 약간씩은 나와야죠. 청소년 정책을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그네들의 욕구불만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전초 단계입니다. 이런 위원회들이 상부 기관에 요구할 때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 의원 위원회의 역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67회 상주시 의회
임사회 2015.9.4.]

2) 어떤 만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주시 의회 시 의원이신 김흥구 의원님을 찾아갔지요.
그분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정책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정말 잘 되었지요.



시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청소년 참여 위원회 문제를 질의하셨지요.
 참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위원회에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한 2년 동안
 상주시 청소년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많은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저희 참여 위원회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내가 시 의원이고 어른이라면 고인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 줄 수 있을까?

청소년의 이야기에 시간을 내어 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以上是 블로그 '상주의 학생들'에서]

용훈이가 보낸 메일(방문 요청)을 봤을 때 좀 놀랐다. 둘이서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준비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평상시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 것 같았다. 굳은살은 물에 불렀다가 벗겨야지, 딱딱한 채로 벗길 수는 없는 일이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그와 일치되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수 있다.

몇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런 내용도 기억난다.

“너희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업그레이드되게 즉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활동해야 한다. 어른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을 너희들이 할 수도 있다. 그것이 기성세대의 생각과 섞여 더 나은 아이টে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나는 특정인을 편애하지 않는다. 용훈이가 요청하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 자리는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3) 1순위는 청년으로!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장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입으로는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추켜세우면서, 행동으로는 자신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생각을 집어넣어 마음대로 주물리고 싶어하는 이율배반적인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치 제도상으로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현재 1순위로 되어 있는 여성 비례 대표보다 20~30대의 청년 비례 대표가 먼저 와야 한다. 미래의 동량(棟梁)인 청년들의 생각과 문화가 정책에 반영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뒤에 여성 비례 대표나 장애인 비례 대표가 오는 것이 맞다.

청년 비례 대표가 맨 앞자리에 오면, 그들의 생각과 목소리가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성 정치인보다 패기 넘치고 풍부한 어젠다를 품고 있는 청년들이기에 기성 정치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도 있다.

“신생 미국이 불과 2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 낸 괄목할 만한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나는 그들의 대통령 선거에도 한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35대 대통령인 존 케네디(John F. Kennedy)부터 제45대 대통령인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까지를 보면, 그 안에 4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놀랍도록 다양한 연령이 분포해 있

음을 알게 된다.

- 40대 - 존 케네디(35대), 빌 클린턴(42대), 버락 오바마(44대)
- 50대 - 리처드 닉슨(37대), 지미 카터(39대), 조지 부시 2세(43대)
- 60대 - 로널드 레이건(40대), 조지 부시 1세(41대)
- 70대 - 도널드 트럼프(45대)

참으로 환상적인 연령의 조합이라고 할 만하다. 그에 더해 미국 유권자들이 내린 선택의 센스 또한 환상적이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을 못 읽듯이,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 집단의 연령대도 다양하게 섞어 놓을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마련을 통하여 나이를 배분하는 것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김홍구 의원은 청소년의 복지 문제를 지역 사회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로 본다. 그래서 김 의원은 “청소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주장하며, 청소년의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들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홍구 의원은 상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상주경찰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위원장, 경북도교육청 초등민간장학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장을 거쳤다. 임기 동안에는 매년 장학금을 상주시 장학회에 쾌척해 왔으며, 교육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도 활동에 매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상주시 의회 김홍구 의원이 2015년 10월 11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재단 법인 상주시장학회(이사장 이정백) 창립 7주년 시민 보고회'에서 장학 기금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상주시장학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 현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교육 기부 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1400여 만 원의 장학금을 상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낙동강 벨트에 청소년 메카를 조성하는 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앞장서서 어필했다. 그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복지 환경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 청소년을 위한 국제 승마장, 밀리터리 테마파크, 낙동강 수상 레저타운, 국립생물자연관, 자전거 박물관, 상주박물관 등 문화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인터넷·약물 중독, 탈선,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정신과 육체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국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때 비로소 청소년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청소년을 단순히 미성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 시대를 개척해 나갈 주인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17.11.23.]

상주농구협회를 조직하다

·
·
·



〔상주농구협회 김홍구 초대 회장은 “상주는 중소 도시에서 드물게 남녀 모두 초·중·고 농구부가 있는 곳”이라며 “학교 체육에 머물렀던 농구를 생활 스포츠로 저변 확대하고 선수들의 진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상주 지역은 상산초와 상주중, 상산전자고 남자 농구 선수단이 80년대 중반에 창단되었으며, 지난해 상주여고 농구부 창단으로 중앙초·상주여중 선수들의 진로 걱정이 사라지는 등 중소 도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남녀 모두 초·중·고교 농구부가 운영되고 있다.

김 회장은 “초·중·고 선수 진로는 지역에서 해결되고 있으나 대학과 프로 진출 등 좁은 진로 때문에 농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매일신문 2007.12.17.]



상주 지역은 농촌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1980년 중반부터 초·중·고등학교 농구부가 운영되었다. 1983년에는 상산초등학교 농구부가 전국 대회를 제패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농구 협회가 없었다.

당시 상주에는 후배들 8~10명으로 구성된 <63동기회>가 매년 길거리 농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대회가 열리는 때는 기부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도움을 주었다.

내가 “농구 협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들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야심차게 일을 추진해 나갔다. 전문가 그룹과 언론인 그룹,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아 발기인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일은 거의 혼자서 다 해 나갔다.

나는 길거리 농구와 청소년들을 주목했다. 농촌 지역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은 항상 많았는데, 정작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점이 내가 농구 협회를 만들려고 결심하게 만든 주원인이기도 하다. 지역에 젊은이들이 살지 않으면 어른들의 미래도 없다.

초대 상주농구협회장이 되면서 맨 먼저 한 일은 <전국추계중고 농구대회>를 만드는 일이었다. 첫 대회에 67개 팀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전국소년체전이나 다른 대회가 열릴 때마다 나도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 어떤 조직이라도 맨 처음 하는 사람이 애를 제일 많이 먹게 마련이다. 나는 초대 회장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재직하였다.



‘창단 5년, 평균 키 163cm, 자체 선수 선발, 외부 후원 전무.’

지난해부터 각종 전국 대회를 휩쓸고 있는 상주여중 농구부의 모습이다. 대회 때마다 농구 협회 관계자들은 이들의 거침없는 우승 퍼레이드에 도무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상주여중 농구부는 지난해 제36회 전국소년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제37회 추계전국농구대회 우승, 2007 춘계농구연맹기 옥천대회 준우승 등 창단 5년 만에 전국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올 들어서는 1월 경남 사천에서 열린 ‘2008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배 대회’에서 우승기를 거머쥐더니, 15일 전북 군산에서 끝난 ‘2008 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농구대회’마저 우승해 2연속 전국 패권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 내고 있다.

특히 군산 대회에서는 경기 종료 2초를 남겨 두고 45 대 46으로 뒤져 우승을 거의 포기했는데, 팀 주장인 김은지(3년·15)가 쏘아 올린 3점 버저비터가 골 그물망을 통과, 극적인 역전 우승으로 이어져 학부모들과 선수단, 학교 관계자들이 얼싸안고 한바탕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명운 농구 담당 교사는 “창단 역사는 짧지만, 매년 경기 때마다 선수들의 강한 의지와 코치의 우수한 지도력이 어우러져 우승 드라마를 연출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12명으로 구성된 이 학교 선수단의 평균 키는 타 학교 선수들에 비해 5~10cm 작다. 160cm에도 못 미치는 선수도 있을 만큼 왜소하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강한 체력과 빠른 몸놀림을 장점으로 갖춰 장신의 숲을 경기 내내 헤집고 다닌다.

임인수(37) 코치는 “선수들의 신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체력과 스피드를 택했다. 연습 시간을 늘려 체력을 보강하고 팀워크의 밀도를 높여 공수 전환의 템포를 한층 빠르게 다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또 상대 팀 선수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한 체력 저하로 움직임이 둔화되지만, 상주여중 선수들은 경기 종료 때까지 실새 없이 땀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학부모들의 열성적인 응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체력 관리는 물론 응원, 경기 전력 분석까지 도맡아오고 있다.

상주시농구협회 김홍구 회장은 “지도자의 처우, 지역민들의 후원 등에 힘입어 열악한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대견스럽다”며 “지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선수와 지도자가 연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2008.04.17]